

창간 52주년 기념사



송석구 총장(철학·본사 발행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실 중 하나로, 꺼지지 않는 지성의 등불을 높이 들어 온 누리를 밝히는 대학의 역할을 일컫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대학에서 또한 빛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언론의 소임입니다.

단순히 대학 내에 소통되는 여론 매체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학문과 대학교육의 실상을 증언하고 전망을 도출하는 창조적 산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한 대학언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 창간 52주년을 맞이한 동대신문의 발자취는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국대학사에서 일찌감치 대학언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대학언론의 불모지대였던 시기인 1950년에 동대신문을 창간한 이래, 여타의 대학신문을 선도해 오면서 시대의 격랑 속에서 진정한 지성인의 열정과 낭만과 고뇌 그리고 열렬한 학문적 탐구심과 교양의 의지를 담아내는 참으로 소중한 그릇이었습니

지성인의 열정과 낭만과 고뇌를 담아내는 소중한 그릇

그 동대신문은 동국대학교의 나침반이면서 우리 사회의 풍향계가 되어왔음을 자부해도 좋다고 확신합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정교하고 정직한 정열로 동대신문을 제작해온 솔한 동인들의 맑이 배인 한 장 한 장마다 시대를 열어나가는 예언과 어둠과 질곡에서 펼쳐나오자 하는 힘찬 약동감이 배여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동대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창간 기념을 자축하는 나 자신이 바로 이 동대신문의 산 증인으로서의 동인임을 자부하는 벅찬 감회는 남다른 바가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고뇌를 가슴에 안고 있던 철학도가 자기 삶의 불확실성을 앎으며, 한편으로 현재적 자기실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때 동대신문에 몸담았던 나의 대학시절을 돌이켜볼 때 솔한 파노라마가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나의 신념과 자질이 대학언론 창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그러한 자기다짐이 오늘 동대신문의 전통에 한 걸음을 보탬의 의도 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소임을 수행하는 원력의 시발점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으렵니다.

바야흐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개교 일백주년을 바라며 교육구국의 소명의식으로 출발한 명문사학의 면모를 괄목할 만큼 쇄신한 대도약의 힘찬 행보를 내딛고 있습니다. 경주의 제2캠퍼스가 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통일의 길목인 일산에 제3캠퍼스의 터를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12월에는 동국대의대·한외대 부속 불교병원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양·한방 협진 시스템으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의의를 지니는 대역사입니다. 동대신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현정의 증인이 되고 기록자가 되고 동참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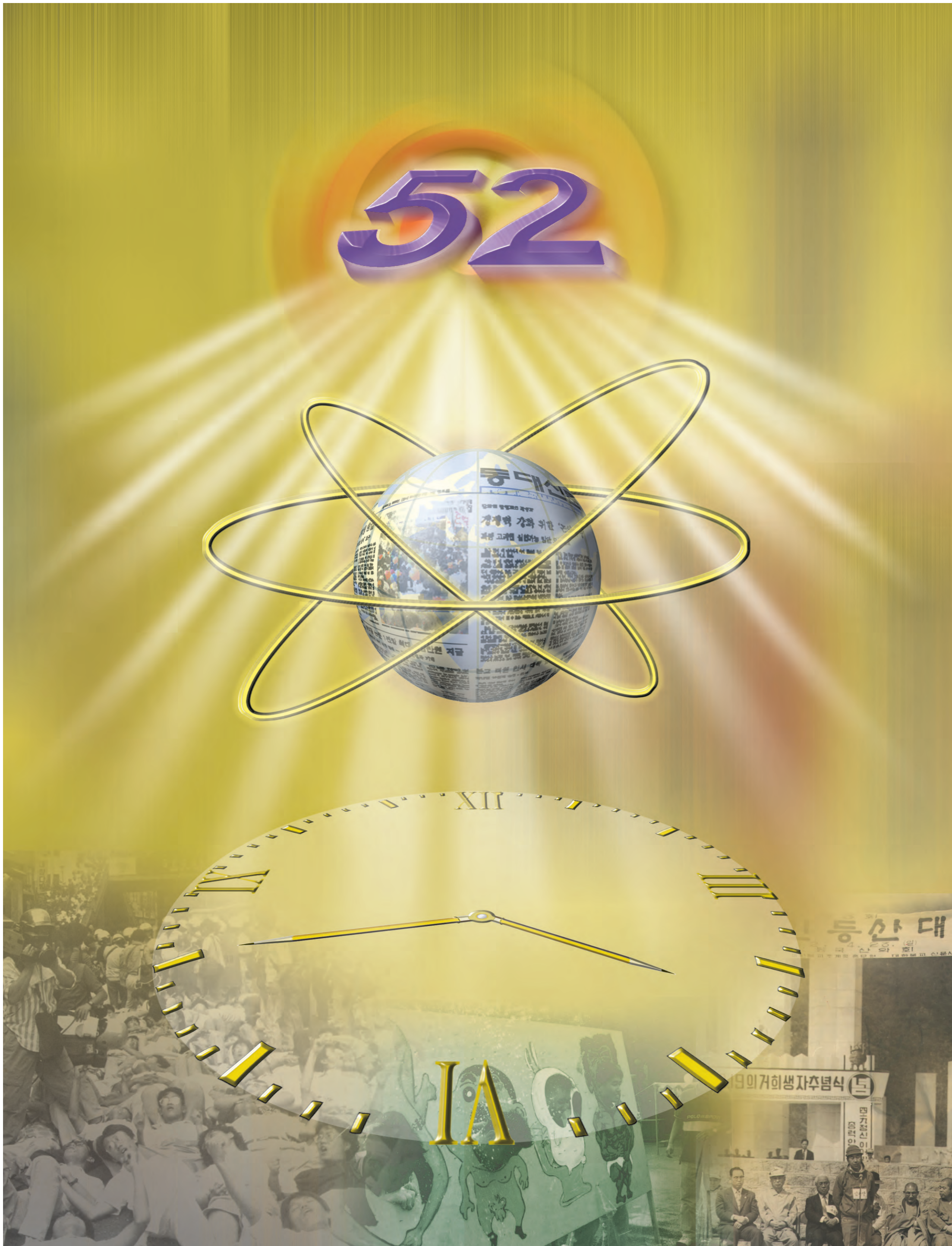
아무쪼록 동대신문은 그 자긍심과 투철한 애교정신으로 동국 발전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격려와 성원의 예필을 두루 펼쳐서 진정한 역사식과 창조정신으로 학교의 미래 비전을 일구어나가는 건강한 역군이 되어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전혜경(문과대1)
- ▲ 김수진(인문과학대1)
- ▲ 김철진(인문학부1)
- ▲ 이혜연(인문과학대1)
- ▲ 최성민(사회과학대1)
- ▲ 김정현(인문과학대1)
- ▲ 유주호(경영대 경영정보1)
- ▲ 이기환(상경대1)
- ▲ 김이름(인문과학대1)
- 이상 4월 15일자

본사는 지난 제1338호 동대신문 1면에 게재된 교수 성폭행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관련한 사진에서 검찰로 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특정인의 명예를 본의아니게 훼손 하였기에 이를 사과드립니다.



지면안내

☞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 4면

최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합법화를 통해 진정한 '100만 학생의 공동체'로 거듭나려는 한총련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총련 합법화를 촉구하며 출범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 변화하는 대학신문을 말한다 6면



대학신문의 위기가 각 대학신문사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사는 '변화하는 대학신문'을 주제로 대학신문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일 본사 회의실에서 특별대담을 마련하였다.

☞ 동대신문이 만난 사람들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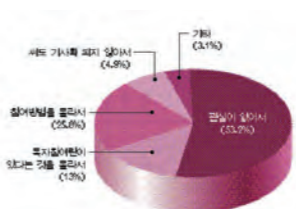
동대신문사가 창간 이후 지금까지 만났던 각계 각층의 인물 10인을 선정해 보았다. 추억속 앨범을 넘기듯 옛 신문을 통해 그들의 옛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동대신문 고정 칼럼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았다.



☞ 창간 52주년 기념 설문조사 12면

본사는 본교 재학생의 일간지 선호도와 동대신문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문항은 구독신문 선호도, 동대신문 인지도,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본교 재학생 중 490명을 성별·학년·단과대로 구분해 조사했다.



총학생회, 총장실 점거 농성 돌입

등록금 인상분 반환 등 요구 ... 학교, "철수 후 면담 응할 것"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가 등록금 인상과 불교종합병원 조 기개원에 반대하며 지난 10일 총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 해오름식 이후 본관을 향의 방문제 총장실 앞에서 교직원과 약 2시간동안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장실을 점거했다.

점거에 앞서 허천택(영어영문학) 부총장은 "물리적인 힘으로 총장실을 점거할 경우 학생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철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병원개원과 관련해 총장 면담

을 약속한 상태에서 일간지에 불교 종합병원 직원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학생을 논외로 하는 것"이라며 점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하는 등 점거장소를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한 중간고사 기간동안 본관 4층 회의실을 열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약 800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4대 총학생회 해오름식은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사로 나선 이상현(경영3) 야간

강좌 총학생회장은 "3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됐지만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재단 이월·적립금은 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을 불교 종합병원 조 기개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영주·사회학 석사과정)는 총학생회의 불교종합병원 조 기개원 반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학교측은 "총장실 점거 상황에서 면담은 성사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철수할 것을 학생회측에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들에게 학칙에 의거 처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한 채 총장면담 등 논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학교와 학생회의 대화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견의 폭을 좁혀,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반성폭력 학칙 제정 1년

인지도·실용성 아직 '부족'

규정 홍보와 시행세칙 제정 등 이뤄져야



본교가 지난해 제정한 반성폭력 학칙 '학내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오는 17일 1주년을 맞는다. 'K교수 사건' 이후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한 반성폭력 학칙은 최근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담당부서인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에 접수돼 처리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의 내용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칙의 존재는 물론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공개된 총학생회와 동아리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여학생실에 신고되지 않고 자체적인 논의와 해결로 마무리됐다. 이는 '여학생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여학생실에 이송해야 한다'는 제3장 8조 2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규정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성폭력 문제 처리 등 해결 과정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사전 해결을 원칙'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본교 학칙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성폭력 학칙 모범사례로 꼽히는 연세대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별도로 명시해 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또한 사건을 규정에 적용,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세칙이 없어 사건 해결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총여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는 학교측에 "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내 구성원과 함께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반성폭력 학칙에 따른 시행세칙을 제정, 성폭력 유형·피해정도에 따른 처벌과 징계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지 2년이 되어 가는 연세대는 반성폭력 학칙의 규정을 학생수준에 게재해 학생들에게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교는 반성폭력 학칙의 홍보가 매우 부족한 만큼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반성폭력 학칙을 알리고 내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을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방중 해외탐방 장학생 모집

다음달 13일 부터 ... 해외견문 기회 확대

방학 중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다음달 13일부터 이틀간 '동국해외탐방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외탐방장학생은 △미주(남미포함) △유럽(호주포함) △러시아 △일본 △중국 및 아시아 등을 탐방하는 총 15팀을 선발하며, 신청자격은 장학신청 자격을 갖춘 평균평점 3.0이상의 모든 재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1명을 포함한 동일 전공 3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학생복지실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할 때는 △참가지원서 △탐방계획서 △학업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주제는 전공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과 연구활동

을 제시해야 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15팀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3일 사이 2주를 정해 항공권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게 되며, 해당국의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탐방하게 된다.

정각원 월례 정기법회 내일(16일) 오후 4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 월례 정기법회가 내일(16일) 오후 4시 열린다.

이법산 정각원장의 법사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슬기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에 대처하는 법을 깨닫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15기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정종성·광운대 총학생회장, 이하 서총련) 출범식이 지난 12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 이재학(한국항공대 총학생회장)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은 4천여명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참석해 △사전마당 △조국통일위원회 출범 △서총련 의장 취임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6.15 민족통일 대추전 서울지역 준비위원회도 함께 발족식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신입생 모의토익결과 발표

지난해 대비 평균 118점 상승

2002학년도 신입생 모의토익 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신입생 3천 138명 중 총 1천 250명이 응시한 이번 모의토익 평균 점수는 503.1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118.1점 상승한 수치이다.

최고득점자는 사과대 김종필 군

으로, 지난해 최고점수와 같은 925

점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어영문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점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고교교과과정 실용영어 교육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서관, 백과사전 웹 서비스 학내 컴퓨터로만 접속 가능

'민족문화백과사전'을 학내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새 소식'란 또는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되고, 매년 사전 내용에 업데이트돼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서비스로 인해 공간문제가 해결되고 동시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사진자료가 추가로 수록되는 등 멀티미디어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국대전 △한문기본 고전 △한의학대사전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불교학, 동양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사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알림

중간고사 관계로 2주동안 휴간합니다. 다음 신문은 5월 6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보리수

사이비와 증상만

일본에서 1955년부터 1960년까지 13권으로 간행된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한자 사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전의 저자인 모로하시 데즈치는 100세의 수명을 누리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저자의 수명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가 100세의 나이에 기발한 발상으로 주목할 만한 책을 저술했다는 사실이다. '공자 노자 석'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에서는 동양의 위대한 세 성인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눈다. 여기서는 성인들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도 대답의 주제

로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먼저, 노자는 명에와 불명에 연연하여 수선을 피우는 사람, 갖추고 있는 실력 이상으로 떠벌리는 사람, 교만하여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공자는 무엇이든지 편파적으로 생각하며 봉당을 만들어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려는 소인형의 사람, 요약하자면 극단으로 달리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특히 공자는 제자인 자공의 말을 빌려, 남의 눈치만 살피며 지혜로운 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정직한 체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밝힌다. 공자는 한마디

로 말해서 사이비(似而非)에 속한 사람을 싫어한다. 사이비란 덕이 있는 체하면서도 실제로는 덕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석가, 즉 부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부처님이 싫다거나 미다는 분별을 초월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전에 의하면, 부처님도 싫은 사람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싫어하는 사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여, 깨달은 체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 좋다고 말한다. 그

러자 5천 명의 무리가 그 자리에서 나가 버렸다. 이처럼 깨달은 체하며 교만을 부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증상만(增上慢)이라고 한다. 나 또는 우리 자신은 혹시 세 성인이 싫어하는 사이비나 증상만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만하다.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와 공평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분무에는 불성실하다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성인들이 싫어하는 무리에 포함될 것이다.

정승석
불교대 인도철학과

동대신문 기획광고

제40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대어를... 낚으시렵니까?

응모부문

시·시조 : 2 ~ 3편 이내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예선

방법 : 본사로 접수한 응모작 중 원고심사를 통해 본선참가대상자 선발
제출기간 : 2002년 4월 15일 ~ 5월 8일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문의 : ☎ (02)2260 - 3491, 3492, 3149
Fax (02)2279 - 1270

본선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 본교 교정

본선 입상자 특전

- ◆ 각 부문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 각 부문 우수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 1년간 등록금의 36% 면제
- ◆ 3위(가작)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시 문학 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 본교 재학생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주의사항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본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반드시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홈페이지(http://dgupress.dongguk.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 문예창작학과

3천여 동국인이 함께한 4.19 등산대회

비로 폐회식 취소 ... 수상·당첨자 내일(16일) 홈페이지에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제33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2일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등산대회는 교수, 직원, 학생 등 3천 여명이 참석 △4인 1조 팀 △학과단체팀 △동아리 단체팀 △행정부서 단체팀을 구성해 진행됐다.

행사는 4.19 기념탑 앞에 모여 진행된 기념 추모식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철학) 총장은 "4.19 혁명으로 희생한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동국인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등반은 진달래 능선을 지나 대동문, 보국문, 대서문에서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도착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상식과 폐회식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따라서 학과단체상, 최우수상 등 수상자와 행운상

추첨 결과는 내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행운상 추첨은 오늘(15일)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에서 언론사 공개로 진행되며, 당첨된 학생은 학생복지실에서 행운권을 상품과 교환하면 된다. 행운상에는 하계방학 기간 중 실시되는 '21C 지도자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이 포함돼 있다.

한편 법대학생회(회장=김문진·법4)는 이번 등산대회 참가를 거부, 오는 19일 자체적인 기념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진 학생회장은 "4.19 등산대회가 점점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단순히 상품을 타거나 단체 단합을 위한 '소풍'으로 퇴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대학생회는 4.19 혁명 당시 희생한 노회두 선배의 분양소를 설치하고, 동우탑 참배와 '4.19 의미 되찾기'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4.19기념 추모식이 끝나고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당선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45표차로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에 김형주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한총련 임시의장이었던 김형주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총 유권자 588표 중 300표를 얻어 256표를 획득한 김재연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형주 한총련 의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끝나서 무척 흥분했다"며 "상대 후보였던 김재연 후보의 의견을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2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의원 대회는 행사 첫날 △경산시민학생 한마당 △진보정당 토론회 △전야제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야제를 마친 후 의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정확한 대의원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다음날 본회의 때 의장을 선출하게 됐다.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충청총련 대의원의 자격 문제, 의장투표 시행세칙에 관한 문제로 회의가 지연돼 오후 9시가 돼서야 의장 선출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졸업앨범·CD업체 선정 다음달 초 촬영시작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종희·정보통신4, 이하 졸준위)가 졸업 앨범·CD 업체를 각각 '광개토대량'과 '디자이너97'로 선정했다. 두 업체는 4개의 앨범업체와 3개의 CD업체가 참여한 공개설명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다음달 초부터 2주간 사진·비디오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졸준위는 지난달 29일 졸업앨범과 CD 업체를 대상으로 거리전 시회를 열었다.

중앙도서관 철야개방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중앙도서관(관장=조몽길·불교학)이 중간고사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층 제3열람실을 철야개방 한다. 단,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건물 출입이 통제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미리 자리 맡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학생들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구부, 전국대회 출전 오는 19일 건국대와 시합

농구부(감독=최성오)가 오는 17일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2002년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한다. 총 10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건국대와 8강 진출을 놓고 첫 경기를 벌인다. 이날 경기에서 농구부가 패할 경우, 오는 17일 열리는 연세대와 경희대 경기에서 진 팀과 20일 패자부활전을 갖게 된다.

정산대 '새내기 농구' 우승 축하 해오름식에서 시상

총학생회가 학원자주화투쟁 선포식을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새내기 농구대회'에서 정보산업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9일 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정산대는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불교대를 46대 41로 이겼다. 자유투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는 중여중문화과가 우승했다. 한편, 공로상은 행사 진행을 맡았던 체육교육과에 돌아갔으며 경찰행정학과와 이과대가 응원상

을 받았다. 시상은 지난 10일 총학생회 해오름식 사전마당에서 진행됐다.

미시간주립대 교환유학생 오는 17일까지 원서접수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국제교류팀이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교환유학생 원서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교환되는 교환유학생 지원자격은 △5학기 재학 △누계평점평균 3.0 이상 △TOEFL(CBT) 성적 213점 이상인 자로써, 외국인과 재외국민 특례입학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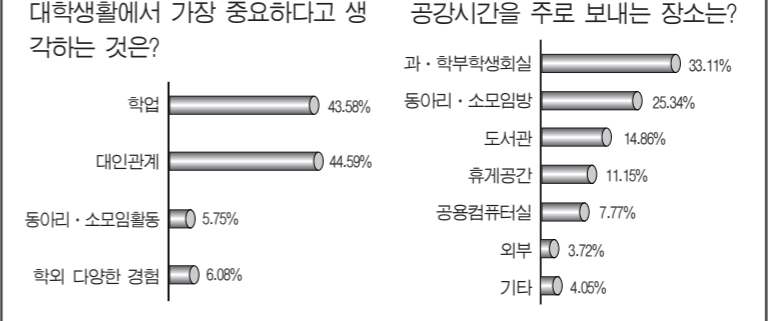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 모집 오는 17일 부터 3일간

전자불전연구소(소장=한보광·선화)가 오는 17일부터 3일간 전임연구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로, 불교학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불전 전산과 사업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명을 모집하는 이번 연구원 선발은 필기·면접시험을 치르며, 필기시험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새내기 대학생 생활 설문조사

'학업' 보다 '대인관계'

45% 응답, 공강시간은 학생회실에서 33%



'대학입학 한 달, 02학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본사 대학부는 지난주 신입생 296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87.16%가 '보통' 이상으로 답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44.59%가 '대인관계'를 꼽았고 '학업'이 43.58%로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대학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강시간을 주로 과·학부 학생회실에서 보낸다는 응답이 3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아리·소모임방,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 실시 이후 학생회 이탈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학생회실이 여전히 학생들의 생활공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학과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사

'우리들의 성 이야기' 발간·배포

본교생 성의식·성폭력 예방지침 등 수록

여학생실(실장=이혜은·지리교육)이 대학 성 지침서 '우리들의 성 이야기'를 발간한다. 본교생 성 의식과 성폭력의 정의, 유형, 사례 및 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다룬 이 책은 학내 각 사무실, 학생회실, 연구실, 동아리방에 다음 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여학생실에서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경험 △성폭력 △성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정의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 △태학 학내 성폭력 사례 △본교 반성폭력 학칙 등이다.

한편 여학생실이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성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은 9.7%, 남학생은 44.9%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학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남학생 2%, 여학생 4.6%가 경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지식을 얻는 곳으로 대중매체와 주변사람들을 꼽는 학생이 많았으며 성교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서적 발간과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학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 됨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책이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전부터

돌아가는 길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일부 전공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과제가 주어진다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되지 않은 학과 홈페이지가 많아 수업게시판을 찾기 위해 번번히 일반검색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뿐만 아니라 학과 사정을 알고 싶은 학부생들 또한 이런 불편을 겪게 되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새로운 내기! 우리 과 홈페이지 빨리 찾는 검색어는?"

집으로

○...학생회관 1층 로비에 펼쳐질 각종 신문에 대한 학생들의 심사가 한창이었는데.

알아보니 배부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원 신문, 교지를 비롯한 각종 신문·잡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거나 펼쳐져 있는 것이라고.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가 파손돼 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생회관 바닥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다른 신문과의 기막힌 바닥겨, 집으로..."

전시용 PC

○...동국관 BSC 실습실을 이용하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아보니 본체가 고장나거나 아예 없는 컴퓨터가 많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좌석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보관리실의 인력 부족으로 근로장학생이 컴퓨터를 고치고 있지만, 한정된 근무시간 등으로 수리에 한계가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Busy but Stop Computer."

함정

○...학생회관에서 후문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이유인즉 돌로 만들어진 계단 곳곳에 가장자리가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 내려가다 넘어지기 일쑤라고.

특히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여학생들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방심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힌다(!)"

이동병무상담실 개설 운영

1. 일 시 : 2002. 4. 16(화) 10시~16시
2. 장 소 : 상록원 식당 앞
3. 상담원 : 병무청 공보실 계장 외 2명

예비군 연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
가. 기본훈련 8시간 : 전역 2~7년차 예비군 ('95~'00년 전역자)
나. 소집점검 4시간 : 전역 1년차 예비군 (2001년 전역자)

2. 교육대상 제외자
가. 2002년도 전역자
나. '94.12.31일 이전 전역자 (전역 8년차 이상 예비군)

3. 교육일정 / 장소
가. 소집점검 4시간 대상자(전역1년차) / 노고산훈련장(219연대)
4. 23(월) 13:00~17:00시 4. 23(화) 13:00~17:00시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사과대 법과대, 정보산업대
경영대, 생지대, 사범대, 예술대, 대학원 공과대, 야간강좌

나.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전역2~7년차) / 219연대 : 08:00~17:00

5. 20(월)	5. 21(화)	5. 22(수)	5. 23(목)	5. 24(금)
공과대 이과대	정보산업대 경영대	야간강좌 사과대 법과대	대학원 사범대 교직원	불교대, 문과대 예술대, 생지대 교직원

4.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5. 휴대품 :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편성카드 복사
6. 유의사항
가. 구과발 전철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셔틀버스 대기
- 기본교육시 : 06시40분 ~ 7시20분까지 운행
- 소집점검시 : 11시40분 ~ 12시20분까지 운행
나. 개인자가용 운행가능 (주차장 완비)
다. 08:00시(오후교육자는 13: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 (위 범소 통제)
라. 예비군복중 1가지만 미착용해도 입소불가
마.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사전 신고하여 일정 조정
7.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 2260-3073~4

예비군 연대

동국대 언어연구교육원 2차 봄특강 개강

	영어회화	Writing & Speaking	Screen English	CBT TOEFL	트루 잉글리쉬 토익	일본어	중국어
강 의	8:00-9:00 (월-목)	8:00-9:20 (월-목)			기본,중급,종합 (월-금)		8:00-9:00 (월-목)
강 의	5:00-6:00 (월-목)	5:00-6:00 (월,화,목,금)	5:00-6:00 (월-목)	6:00-7:30 (월-목)	기본, 중급 (월-금)	6:00-7:00 (월-목)	6:00-7:00 (월-목)
강 사	외국인 교수	오전:Mary-Anne 오후:Lezlie	James Crossman	오금동	토익전문강사진	김영희	전문강사진
교 재	수준별 교재	오전:Tapestry 1 오후:North Star	Friends	Peterson's TOEFL CBT	수준별 교재	JPT 문제풀이	회화:베이징중국어 HSK:HSK중문재집
정 원	15인	15인	20인	30인	40인	20인	회화:15인 HSK:20인
강 의	2차 : 2002년 5월 1일(수) ~ 2002년 6월 4일(화) (6주 과정) * 중국어 : 8주 과정						
수강료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10만원 일반 11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기본,중급:9만원 종합:10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12만원 일반 13만원
접 수	2002년 4월 17일 (수)부터						
문의 및 접수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혜화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8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2과목 동시 수강시 1만원 할인 혜택
- 전 수강생 웹 토익 무료 수강 -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강 전 신청
- 수강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원에 미치지 못할 시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동국대 언어연구교육원 2차 봄특강 개강

본교생 성의식·성폭력 예방지침 등 수록

한편 여학생실이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성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은 9.7%, 남학생은 44.9%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학내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남학생 2%, 여학생 4.6%가 경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지식을 얻는 곳으로 대중매체와 주변사람들을 꼽는 학생이 많았으며 성교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서적 발간과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학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 됨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책이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

이적의 밧줄, 수배의 수갑을 풀자

한국 사회 최대의 학생운동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형주, 이하 한총련). 하지만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빼놓고는 한총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매년 수백명의 학생대표자들이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배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지 못한채 국가를 전복할 위협세력으로 낙인찍혔던 한총련이 이적규정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합법화를 위한 한총련의 움직임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연방제안을 6.15 공동선언으로 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범 후 10년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강령을 전면 개정한 것. 개정된 강

령에는 여성, 인권, 환경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한총련은 '강령·규약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 강령개정 공청회'를 개최해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의장경선 과정에서도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신선한 내용을 담은 양 후보의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김재연(한국의대 총학생회장) 후보는 전국을 행진하면서 국민과 대학생들을 만나는 '한총련 합법화 전국행진대회'를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의장으로 당선된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 후보는 한총련에 대한 TV, 인터넷 토론을 추진하는 한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특별위원회'를 건설해 합법화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총련의 내부사정을 살펴볼때 이러한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총련은 간부인명, 위임장 문제를 비롯한 규약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의 입시의장 경선과 이번 의장경선 과정에서도 쟁점사항에 대해 큰 입장차이를 보였다. 합법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총련이 이적규정을 받는지 5년만인 올해 오랜 숙원이었던 합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한총련? 우리 관심없다”

대부분의 정치권, 언론 무관심으로 일관

정치권은 한총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치권에서 한총련이 비교적 많이 거론될 때는 주로 색깔논쟁 시비가 불거질 즈음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있었던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발언이다. “노무현후보는 한총련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식의 색깔논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해에는 당시 한완상 부총리가 한총련 수배명단 작성자 문책지시 논란으로 색깔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총련이 색깔논쟁을 일으키는 데 나쁘지 않은 매뉴얼 셈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치권내에서 한총련에 대한 다른 논의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비서는 학생운동진영 출신 정치인들이 비교적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총련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아며 “한총련 이적규정과 관련한 대 정부질문조차 한 번도 들어 본적 없다”고 꼬집었다.

논의의 부재는 경선 후보자들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견해가 불충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여야 경선후보자들 중 이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강령 개정했다면 합법화해야”한다고 밝힌 이부영 의원(한나라당) 뿐이었고, 견해를 나타내기보다는 ‘이적규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기본적 입장을 가진 후보가 대부분이다.

한총련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상태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훗날 색깔공세의 발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한총련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어느 경선후

보 선거캠프 담당자의 말은 이 같은 현상이 ‘조심성’ 때문만은 아님을 나타낸다. 한총련 문제 자체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의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의 관심이 곧 정치권의 관심인데 신문은 한총련의 이야기가 나오기나 하는가”

‘정치인들은 언론이 묻는 범위에서만 정책을 짚는다’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주장으로 보자면 한총련 이적규정은 ‘언론이 묻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조준상 한겨레신문 기사는 “기성언론들은 어쩌다 한번씩 구속보도 등 피상적 보도만 했을 뿐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법적 분석과 같이 진지한 접근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령을 고치는 등 그동안 기울여온 한총련의 합법화 노력과 의지를 가려온 것은 바로 한국의 주류세력이라 불리는 정치권과 기성언론의 이같은 무관심과 의도적 외면일 것이다.

송운경 기자 itsj@dongguk.edu

합법화 도와줄 새로운 친구

한총련에게 합법화를 향한 희망의 길을 열어갈 동반자가 생겼다. 지난 달 20일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법 사회인 대책위원회(위원장=권오현·이하 대책위)를 발족한 것이다.

준비모임기간동안 각계 인사의 메시지를 담은 ‘한총련이야기’를 발간하고 한총련세대(www.h-gen.net)라는 대책위 홈페이지를 운영해온 이들은 발족 후 한총련 강령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주최하고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검·경찰청 면담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발족 후 약 200명이 늘어나 현재 86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며 차기 대통령 후보단이 한총련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활동을 벌이는 한편, UN 인권위 제소를 통해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다.

취업의 또다른 장벽, ‘연령’

대부분 기업 입사시 연령제한 ... 취업난 부추겨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 2년 전 본교를 졸업한 김범준(30) 씨. 그는 올해 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고 뒤늦게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름 아닌 ‘나이’ 때문이었다. 김씨는 “군 생활 후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기업체의 취업연령제한에 걸려 있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9년 본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성철(31) 씨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는 김 씨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원은 ‘젊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본교 취업지원팀에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IMF 이후 취업난에 시달리던 대학 졸업자들이 각 기업체의 취업연령 제한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채용 대상을 남자 28살 이하, 여자 25살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교 취업지원팀 김명숙 씨는 “채용 자격에 연령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체들도 내부 방침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일정 연령을 넘긴 학생들은 인사원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거나 원서를 내도 채용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렇듯 취업연령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작년 11월 ‘연령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의사만 밝혔을 뿐 아직까지 연령 제한에 대해 이렇다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연령에 따라 채용을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취업연령 제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의 류한승



간사는 “현재 취업연령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 중”이라며 취업연령 제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취업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 내 업무풍토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식회사 한샘의 한 인사관계자는 “상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 위계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아남반도체 등과 같이 취업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업체들의 의견은 이들과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 채용인사팀의 박용 씨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지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본교 김상겸(법학) 교수는 “이제는 구시대의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 뿌리박혀 있는 유교 윤리 때문에 연령으로 입사 가능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인재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동약로 권한의 남용



“누구 허락 받고 운동장을 쓰는 겁니까?” “학생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요?”

운동장을 쓰는 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축구공을 가져온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현재 경주캠 운동장은 공식적으로 학생복지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주캠 동아리 동대축구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동대축구부는 총학생회 산하 운동부라는 명목으로 운동장 사용 스케줄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대축구부의 스케줄 중심 관리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운동장 이용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설령 학생복지실의 허락을 받고 왔다고도 뉘박을 맞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인 힘보다 비공식적인 힘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 팀만

항의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대축구부는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일이 관행으로 굳어진 데에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복지실의 탓도, 무관심했던 총학생회의 탓도 크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 구실을 제공한 총학생회마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대축구부의 기세를 더욱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무비판적인 의식이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데 큰 역할을 한 만큼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함민희 기자 lliith@mail.dongguk.ac.kr

정부가 대학생에게 금강산 관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금강산을 새로운 모꼬지 장소와 통일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전국 대학의 학과, 동아리, 학회회장단 대표들의 금강산 모꼬지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 화해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체험학습을 목적으로 금강산 평화관광 답사를 다녀왔다.

이제 금강산 답사운동은 전국 대학가로 확산되어 많은 대학에서 힘 다지기 모임과 대규모 수학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깝게는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가 4월 중 출항할 예정이고 동국대 북한학과는 4월 10일부터 2박 3일간 금강산으로 모꼬지를 다녀왔으며 조선대생 100명도 금강산 통일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통일장정의 성지

그동안 퍼주기 논리의 맹공 속에서 동국산 관광사업은 '평화 퍼오기' 사업으로 굳혀지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이 '6·15식 통일운동'이라는 대안적 발상은 점차 대세론이 될 것 같다. 딱 막힌 남북관계를 금강산이 확 뚫어 버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통일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통일장정의 성지이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자연경관의 관광이 아닌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관광이므로 분단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통일의 성지순례를 해외여행에 앞서 생각하는 것이



심 의 섭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논단

통일세대 그대 떠나라! 금강산으로

떴던가?

구태여 소동과 시의 한 구절인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다'를 되뇌이지 않더라도 금강산은 불어일견이라고 학생시절에 각인해야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밑물에 배 띄우고, 배 있을 때 강 건너듯 조국의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의 매듭을 체험하기 바란다. 육로 관광이 트이기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단을 체험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훗날에 전해주기 위해, 청춘이 가기 전에 그리고 보조금이 주어질 때 금강산을 크루즈 여행으로 다녀오는 추억을 남겨보기 바란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통일의 상징적 장소이다. 관문점이 분단 반세기의 질곡과 치욕의 상징이라면 통일시대,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상징이 바로 금강산이다. 관문점이 군사적 분단과 고통의

상징이라면 금강산은 민족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금강산은 평화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여 이끌어 오고 있으므로 수학여행은 물론 축제행사와 같은 학생들의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여 금강산을 평화통일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모꼬지장소로

영어연수를 학점에 연계시키고 취업에 가산점을 주듯이 금강산 연수를 관련과목의 학점과 취업에 연계시켜서라도 통일의 군불을 지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금모으기 운동을 과시하여 IMF시대를 극복하였듯이 금강산 분단체험학습과 통일현장실습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겠다.

우리 또래에는 독립이, 광복이, 건국이, 통일이란 이름이 적지 않은데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기에 자식의 이름을 그토록

지었을까? 이제 금강산 신희여행으로 금강내기들이 태어나면 독립이, 광복이, 건국이, 통일이 형제자매들이 금강내기들의 손을 잡고 통일의 길을 걸을 것이다. 개가 짊어도 캐러번은 간다고 했듯이 통일의 장정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우리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임동원 특사의 방북 보따리가 금강산에도 훈풍을 몰고 와서 다행이다. 보는 것도 변화되고 보이는 것도 변화이다. 이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복하다. 금강산에 가기 전에 많이 읽고, 가서 많이 보고, 또 보이고 많이 느끼기를 바란다.



공소시효 배제운동 본격화

인권단체 “국가범죄도 처벌하라”

형사소송법과 특별법 제·개정 추진

매주 금요일마다 명동과 대학로 일대를 지나다보면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벌이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이처럼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이 인권사화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사라져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하기 힘들게 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지 김 사건, 서울대 최중길 교수 의사사 사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들은 국가기관에 의해 반인도적인 방법으로 자행된 후 오랫동안 은폐돼 있다가 최근에야 실체가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제도가 반인도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내에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삽입하고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향후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기 힘들 뿐 아니라 기존 법률을 개정

해 반인도적 범죄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법안 역시 당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특별법 형식으로 법률을 도입하지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안을 만들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며 민주당 합승회 의원도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합승회 의원의 법안은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법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5.18 특별법 위헌 심사에서 '중대한 공익은 공소시효에 의해 보호할 수 있는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사회 또한 이미 지난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시효없는 처벌'을 명문화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운동이 국내 법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용어설명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급입법
기존의 법에 의해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설

독자에게 전하는 약속

1950년 4월15일 "진리의 전당에서 유통하는 사회의 흐름을 감각한 학도가 스스로 연마한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발표하고, 민중의 지도자로서 자부하는 학도가 사회의 여론을 지도하고 대중을 각성시키는 목탁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창간했던 동대신문이 오늘로 52주년을 맞았다.

공자가 논어에서 사물의 이치를 타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아 했던 불혹(不惑)의 나이 40을 훌쩍 넘어 천명(天命)을 안다는 50줄에 들어선 지 두 해가 지나는 셈이다. 이에 본사는 변화하는 대학신문의 올바른 방향을 알아보고자 특별대담을 열고 동대신문 인지도조사를 위해 서울·경주 양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각계 언론사 기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패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담에서는 변화하는 대학신문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8·90년대 사회의 진보연론으로서 일익을 담당했던 대학신문이 현재에 이르러 시대 흐름과 독자의 변화에 발 맞추지 못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동대신문 역시 신문 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9%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해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되고 있지 않가는 마찬가지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70%가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 중 대부분이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했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동대신문의 구독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66.9%가 구독한다고 대답해 여전히 동대신문이 학내여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종이신문과의 상호보완관계를 이뤄 독자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산이 변해도 다섯 번은 변했을 긴 세월을 동악인과 함께 해온 동대신문은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동대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사는 이 자리를 빌어 동대신문의 독자에게 지켜봐 주신 데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진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발표' 한다면 창간 당시의 다짐을 잊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한다.

동국만평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장영길	이메일 ID	dgpupress
편집국장	류병성	내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장	손상민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1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특별대담 - '대학신문'을 말한다

'변화' 향한 한 발 내딛을 때

체계 유연화 · 인터넷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유지 등으로 진전기대

본사는 창간 52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대학신문'을 주제로 대학신문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보기 위해 특별대담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담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각계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를 중심으로 담론의 전달자로서 바라보는 대학신문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되었다.

편집자

일시 : 4월 9일 오후 6시

장소 : 본사 회의실

참가자 : 장하용(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우성(대학신문 기자)

백영순(유뉴스 기자)

표광민(서울대 '대학신문' 기자)

사회자 : 손상민(사회3 · 본사 편집장)



△사회자 = 우선, 변화하는 대학신문을 말하기에 앞서 각자가 바라보기에 대학신문은 현재 어떤 위치이며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짚어보자.

△장우성 = 흔히 말하는 대학신문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지금의 대학신문은 독자와 유리된 채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학교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하다.

△백영순 = 예전 대학신문이 좌편향적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우편향적인 특성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판적 시각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서인지 지금의 대학신문은 이벤트성 기사나 일회성 기사에만 치중하는 등 자기만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또한 80년대, 대학신문이 유일한 진보매체였던 때와는 달리 현재 많은 일반 매체들이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신문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딱히 대학신문이 그 대학만의 특징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동대신문을 봤을 때 동대신문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딱히 그렇게 느낄만한 기획이나 소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장하용 =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80년대까지 학생 운동권 내지는 사회 비판 의식을 강조하는 대학신문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졌다면 90년대 이후 소위 말하는 '위기'라는 개념 이전에 대학신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만드는 신문이니까 분명히 독자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으로 아주 구체화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신문에 비해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도 아주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의 등장은 대학신문이 시대 흐름과 독자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우성 = 대학신문의 정체성에 앞서 대학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굉장히 대학이 파편화되어 있는 반면 이들이 대학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n@e'은 이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지금은 약 30명의 학생 리포터들과 아이템도 짜고 회의도 하면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잡아나간다. 학생 리포터들에게 요구하는 건 많지 않다. 일종의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마음껏 이야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흥미와 정보위주라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우리는 신문사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피력하기 이전에 독자들이 바로 리포터로서 또 신문을 만드는 주체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갈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 신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역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자 = 대학신문을 역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일간지와 같은 대판을 과감히 타블로이드판으로 전환하는 가, 지면 자체를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어 입체감을 시도하기도 한다.

△장하용 = 학생 기자 대부분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가 된다. 공식적으로

한국외대의 경우, 800호 기념으로 과방 꾸미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도 했다.

'대학신문(서울대 신문)'도 얼마전 4월 1일 만우절에 맞춰 한 면을 거짓기사로 내보내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표광민 = 출발은 농담 삼아 만우절인 4월 1일이 월요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했다. 총장 사외이사 겸직, 민영화 등 많은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한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우선은 소재 선정부터 기사내용까지 신중을 기해 어느 정도 사전기간을 두고 준비했고 그래서인지 만우절 특집이 들어간 4월 1일자 신문의 독자가 평소의 3, 4배가 넘었다.

비록 다음 호 신문에서 독자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신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장하용 = 외국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하곤 한다.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받은 대학신문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독자들의 관심을 바라기에 앞서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학교의 지원으로 기자들이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기자들은 재미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가치 있는 기사라도 읽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편집에 신경을 쓰고 업무분담을 철저히 해 기사 쓰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우성 = 신문을 굳이 기자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야 한다. 대학신문사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면 한다. 부족한 지면을 독자들이 꾸릴 수 있게 다양한 통신원, 모니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러 사람의 글이 실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발미로 전체 신문을 훑어 보면서 '아~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신문의 체계를 보면 다소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많았다. 대학신문이라면 구조나 체계 자체

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신문들이 가지는 인터넷 신문의 취약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이 곳에 와서 얘기를 해봤자 공식적인 신문이라는 것은 기자가 쓴 글이 거의 지면화 되고 어떤 의견을 고민해서 올려도 독자의 목소리 정도로 그칠 뿐 지면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 자체적 인터넷 언론인 'SNUnew'는 오마이뉴스와 같은 형태로 가입을 하고 어느 정도 글을 쓰면 운영자 측에서 선별해서 글을 실어주는 형태를 위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대학신문들이 가진 경직된 틀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점이 지금의 인터넷 세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 침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장하용 = 인터넷 매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점, 참여적이라는 점이다. 대학신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현재 대학신문들은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료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구배여 홈페이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

방향으로 적절히 배합해 이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서 대학신문에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장우성 = 지금은 육박을 것을 각오하고 큰 실험을 한번 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신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묶어내고 있는 뭔가가 있는 듯하다.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된다.

그것을 주저하다 지금과 같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왔던 것이고 이것이 확대재생산 되었다. 과거와는 좀 다른 색다른 뭔가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이 성공한다면 좋은 선례가 되어 확장될 것이고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진지한 문제의식과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만들어진다면 뭔가 대학신문의 새로 나아갈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또한 그것을 대학신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들의 머릿속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표광민 = '대학신문'은 학내에서 관악의 '조선일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일단 독자층의 감소라는 오래된 문제와 더불어 최근 들어 더 큰 압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SNUnew'나 서울대 저널 학과에서 만드는 웹진이다. 그들이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번 만우절 특집에 보인 학생들의 관심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은 것은 그것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짓말이 아닌 진짜 기사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결국 기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해야 한다.

△장하용 = 대학신문이 주간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 신문의 시의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대학신문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대학신문을 얘기할 때는 대학사회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신문이기 때문에 기성사회에 가할 수 있는 사회비판적인 시각, 토론문화와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대학 교유의 색깔로서의 대학신문과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신문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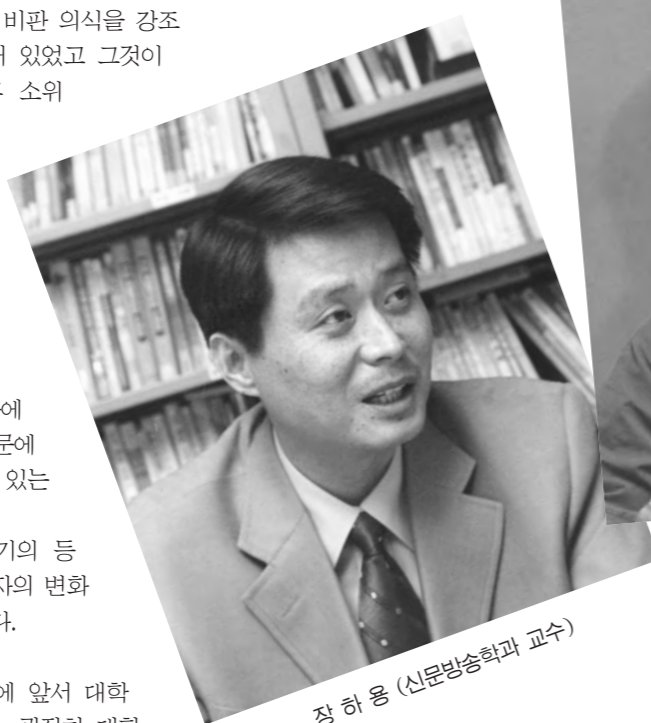
주간신문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려 뒷북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단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영한다면 대학신문의 정체성도 보완될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에는 돌아다니는 무수한 루머들을 대학신문에서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자 =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신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담을 통해 대학신문이 당면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좀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바쁜 외출에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학신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정리 = 손상민 기자
ne09292@dongguk.edu



장 하 용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 우 성 (대학n@e 기자)



백 영 순 (유뉴스 기자)



표 광 민 (서울대 '대학신문' 기자)

진지한 문제의식과 고민 속에서 발상의 전환,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만들어진다면 대학신문의 새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위트와 해학이 있다면, 또 대학신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촌철살인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볼 일입니다.

△표광민 =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면서도 의미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러한 시도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기자들의 트레이닝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업무 자체도 과도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과 기자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사회자 = 실질적으로 신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학업과 기자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기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학신문의 위기와 더불어 대학신문사의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하용 = 학생 기자 대부분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가 된다. 공식적으로

도 상당히 열려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신문 내부의 구조적 체계를 많이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백영순 = 이제는 대학신문 기자들만 아웅다웅해서 만드는 신문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유뉴스 같은 인터넷 신문은 독자 누구나가 기자가 될 수 있고 매일 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독자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사회자 = 대학신문의 변화와 더불어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인터넷 신문이다. 많은 대학신문사들이 인터넷 신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취재기자가 담당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고 단순히 지면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옮긴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를 두지 못하고 있다.

△표광민 = 우리 신문사의 경우, 작년까지 데이터베이스만을 구축해 놓고 있었으나 그나마 활성화되

은 인터넷 신문이 오프라인 신문의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가령 오마이뉴스의 경우처럼 기사가 좋다면 원고료를 준다거나, 오프라인 신문에 기사를 실어준다든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참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백영순 = 인터넷 신문의 장점은 오프라인 신문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독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반면에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다 보면 심층적 이슈를 다룰 때 오프라인 신문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대학신문에 있어 인터넷 신문은 하나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정보가 있어서 속보성은 인터넷 신문에서 소화하고 종이신문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화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인터넷 신문과 종이신문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영화계 정상을 향한 화려한 신호탄이 터진다

동국대 연극과는 1960년 시작하였고 1963년 당시 문교부였던 교육부의 유사학과 통폐합령에 의해 전국의 모든 학과가 연극영화과로 통합되었다.

1980년대 이후 명칭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가장 먼저 연극과 영화를 분리한 곳은 중앙대였고 당시 동국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연극·영화를 고루 발전시킨 곳은 중앙대 한곳이었다. 동국대는 여전히 연극, 한양대는 영화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영화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적어도 1990년대까지 동국대는 결코 명문이 아니었으며 중앙대 영화과가 최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동국대 영화과의 위상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는데 3개 대학 가운데서 가장 취약했고 후발주자였다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과 중앙대가 안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제, 우석대 등 두뇌들이 대거 서울로 몰렸다는 이점이 작용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동국대 영화과는 연극과의 분리를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분리함으로써 약진의 발판을 삼게 되었다. 기자재, 공간, 교수자원, 커

리큘럼에서 3개 대학중 가장 취약했던 동국대 영화과는 연극과, 영화과를 분리하면서 사실상 전국 최강의 학교로 급부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서서히 영화과의 틀이 잡혀나가면서 근래 5년 내외로 영화 현장에 나가 있던 영화전문자들이 한명씩 등장하면서 비로소 저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저력 과시하기 시작

투쟁적 영화정신 계승해

영화과 명문으로

그나마 동국대에서 영화가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오발탄, 순조, 김약국의 딸들, 카인의 후예 등을 연출한 유현목(국문 49졸)이라는 동대가 낳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 1974년 이래 연극영화과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까지 3개 대학 영

화과에서 그에 필적할만한 유명하고 유능한 교수자원이 존재한 대학은 한군데도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동대는 가장 유리한 교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영화의 통합교육 때문에 영화는 그 당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유현목 감독을 중심으로 '디답볼' '전진새날' 등의 소모임을 자체 결성하여 영화를 배워나갔다.

학생들은 영화를 하기에 좋지 않았던 학과내 환경의 악조건을 물리치고 조금도 굽하지 않은 체 영화를 지향했으며 유현목 감독의 제자들에 의해 투쟁적 영화정신이 배양되었고 지금의 모든 결과는 바로 그 정신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동국대 영화과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최고의 명문으로 마침내 도약하였다. 천재소녀감독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스물여섯 모지은의 감독 데뷔와 최근 장안의 화제를 모은 '집으로...'가 영화과 동문들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점에 이세 동대는 화려한 출발을 알리고 있다.

정재형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영화제작사 '튜브픽처스'를 다녀와서

'집으로...' 만든 집으로 가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에만 관객이 모이는 요즘, 할머니와 손주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집으로...'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선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영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온 바림잡이(?)들이 동문이라면 어떨까. 영화 '집으로...'를 제작한 '튜브픽처스'의 직원들 대부분은 본교 영화영상학과와 영화동아리 디답볼 출신들이다. 튜브픽처스는 황우현(영화영상 95졸) 동문이 창업해 지난해 '파이란'을 제작하면서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영화제작사이다.

시나리오 검토부터 촬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의 총체적인 일을 하는 튜브픽처스는 영상팀, 제작팀, 관리팀,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예고편 제작활동을 하는 영상팀의 대부분은 영화영상학과 소모임 '전진새날'에서 활동한 이들도이다. 이처럼 학부시절 때부터 함께 작업해온 사람들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 분위기가 가족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원에 의존해 일하는 꿈꾼다면 큰 오산이다. 이와 관련해 제작팀 이요환(영화영상 01졸)동문은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한국영화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후배들의 보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튜브픽처스는 '데우스마키나' '해피에프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주제를 지닌 4편의 영화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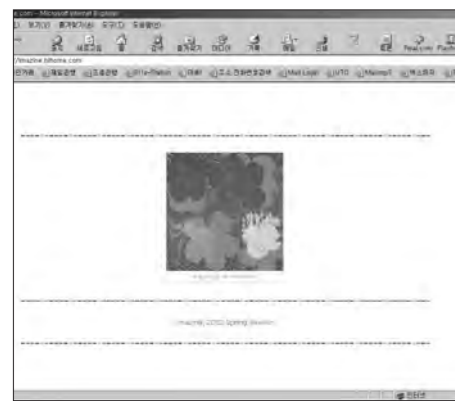
독의 경력보다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황우현 대표의 말처럼 튜브픽처스는 능력있는 신예감독이나 배우들을 적극 양성해 우리 영화계를 한결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튜브픽처스의 활발한 제작활동은 한국 영화계 전체에서 본교 영화영상학과와 영화영상학과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튜브픽처스의 새로운 시도들을 주목할 삼아 본교 영화영상학과가 한국영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클릭! - 이매진(imagine.hihome.com)



식을 바탕으로, 예리하게 앨범의 장단점을 꼬집어 일반 리뷰와는 사뭇 다른 재미를 준다.

또한 북뷰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내걸고 구·신간도서 리뷰를 제공하며, 픽션 코너에서는 운영자가 직접 쓴 소설을 읽을 수도 있다.

한편 이매진의 관심사는 이러한 문화영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외적인 영역까지 뻗어있다.

안티조선을 주장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왜 안티조선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트래쉬토크에서는 정치·사회·국제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매진은 '비블럼'이라는 아이디의 개인이 운영하는 웹진인 까닭에 다소 주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위나 이름이 아닌 글쓰기 하나만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장점을 잘 활용한 예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매진이 온라인 상에 열린 문화의 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한 가수가 새 앨범을 발표하면 많은 매체들이 그 음반을 평가하기 위해 모여든다. 하지만 수십가지 앨범리뷰의 내용은 전편일뿐 적이기 일쑤이다.

이러한 불어쌍 같은 앨범리뷰에 싫증이 났다면 '이매진(imagine.hihome.com)'을 클릭해 보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매진에는 앨범리뷰, 트래쉬토크, 픽션, 북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앨범리뷰 코너는 새로 발매된 앨범과 함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오른 앨범리뷰는 풍부한 배경지

역할극, 언어에 담긴 은밀한 폭력의 욕망

판역 · y역극 · 학역 등 종류 다양 ... 공격성 · 그릇된 성 의식 조장 우려돼

"죽어!"

'미즈코는 낮을 휘둘러 메구미의 목을 자른다'

어느 채팅사이트의 한 채팅방. 문장부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니터의 하단 화면 위로 글자들이 떠오른다. 얼핏 보기에는 채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 하지만, 내용에 들어가면 살벌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펼쳐진다. 바로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다가 지난 5일 국내 개봉한 영화 '베를로얄'의 역할극이다.

'역할극'이란 배우의 역역을 통해 연극적 효과를 얻는 극을 뜻하는 말로, 본래는 교육이나 인성개발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적 행위이다. 정신분석이나 심리분석치료에도 치료요법으로 자주 이용되며, 이런 역할극에서는 전문 배우가 아닌 참여자나 치료대상자가 대본에 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극의 흐름을 풀어나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채팅사이트에는 이를 변형해, 사이트 사용자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소설 속 주인공의 배역을 직접 맡아 연기하는 '역극'이 유행하고 있다. '역극'은 역할극의 준말이며, 판타지 역할극은 '판역', 동성애를 다룬 야오이 역할극은 'y역극', 학원물 역할극은 '학역' 등의 명칭으로 통용된다. 이런 역할

극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확산과 함께 기호와 취미에 따라 결집하는 매니아층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로 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역할극을 즐기는 사용자들은 기존의 작품에서 기본 줄거리와 인물설정만을 참고할 뿐 그 외 부분에서는 새로운 상황을 전개하며 유동적으로 줄거리를 창조해 나간다. 또한 토대가 되는 작품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해 역할극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문장부호를 가지고 대사와 상황설명, 행동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극의 흐름에 상관없는 접합과 인물설정은 「」, 등장인물의 생각은 () 안에 넣어서 표현한다. 또한 인물의 행동과 상황 설명은 '나' 등의 부호로 나타내며 아무런 문장부호 없이 하는 말은 그대로 등장인물의 대사가 된다.

이는 자유롭게 상황을 설정하고 상상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듯 하지만, 내용 면에서 폭력성과 잘못된 성 의식 조장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베를로얄' 류의 역할극 대사가 지니는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이나 영화 또한 폭력성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역할극의 폭력성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사용자가 직접 상황을 만들어내어 서술하는 행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행위보다 더 사람들의 공격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밖에 야오이 역할극 같은 경우, 확실한 주관이 형성되지 않은 10대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도 있다.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의 사상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집단적 언어가 자신을 비뉘어준 욕망의 높으로 빠져들도록 얽어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대사에 몰두해 만족과 쾌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때 사용하는 단편적이고 폭력적인 언어가 자신을 비뉘어준 욕망의 높으로 빠져들도록 얽어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2002 동국해외탐방장학생 선발 안내

2002 '동국해외탐방장학'은 학생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현장교육을 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우수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탐방대상**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각 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 탐방지역은 1개 대학으로 한정함.
- 등호주제**
전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탐방 및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 등호지역**
- 본교 재학생(경주캠퍼스 포함, 휴학생 제외)으로서 장학규정에 따라 지원하기 17학점이상 취득, 평균점수 3.0이상인 자(경영대, 불교대 15학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 탐방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1명이상 참여
- 등호구성**
동일장학(대학) 재학생 3명으로 한다. (탐방구성 초과 및 추후 명단 교체 불가)
- 선발인원**
45명(15팀×3명),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탐방국가 및 선발일수**
①미국(남미포함) 5팀 ②유럽(호주포함) 3팀 ③러시아 1팀 ④일본 3팀 ⑤중국·아시아 3팀
- 탐방기간** : 2주일간(13만 14일)
* 시기는 7월 9일(월)부터 8월 23일(금)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
* 탐방지역 : 왕복항공권(제1목적지) 및 소정의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지원내역(인기기준)
①미국(남미포함) : 50만원 ②유럽(호주포함) : 50만원 ③러시아 : 30만원 ④일본 : 40만원 ⑤중국·아시아 : 20만원
* 여권, 비자 등 관련서류는 개인별 준비
- 제출서류**
○ 참가원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탐방계획서 : 서용지 20매 이상
- 탐방분야 : 목적 - 탐방일정, 지역, 국가, 탐방대상
- 탐방활동 : 계획 - 탐방활동의 사회적 기여 또는 기대효과
- 인터넷상 계획서
○ 학원지도교수 탐방계획 지도 확인서
- 등호기간 및 접수처** : 2002. 5. 13(월) ~ 14(화), 학생복지실(본관 3층)
-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
* 각 국가별 탐방 선발하며, 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제외함.
- 선발결과 발표**
2002년 5월 31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 탐방비 부담사항**
○ 탐방결과보고서 제출(탐방 종료후 2주내) - 여권 사본 1부
- 체재중 인터넷 결제 - 각종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 우수탐방팀 시상**
탐방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탐방팀 선발, 시상
○대 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50%)
○우수상 : 1팀(장학금 - 등록금 30%)

학 생 처

2002학년도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

- 정규 한국어 과정(총, 기출 10주/여름, 겨울 8주)**
- 월~수 오전 9:00~오후 1:00/ 목~금 오전 9:00~오후 12:00 (주당 18시간)/
-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사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봄	2002.2.7	2002.3.11~5.17	₩900,000
여름	2002.5.24	2002.6.17~8.9	(교재, 특별활동 및 여행 포함)
가을	2002.8.23	2002.9.16~11.22	
겨울	2002.12.14	2003.1.6~2.28	

- 집중 한국어 과정(총, 기출 10주/여름, 겨울 8주)**
- 월~목 오전 6:30~8:30(주당 8시간)
- 목~금 오후 6:30~8:30(주당 8시간)
- 체류 외국인 및 교포 대상으로 오전의 정규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대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비자와는 관계없음.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봄	2002.2.7	2002.3.11~5.17	₩350,000 (봄, 가을)
여름	2002.5.24	2002.6.17~8.9	(교재포함)
가을	2002.8.23	2002.9.16~11.22	₩250,000(여름, 겨울)
겨울	2002.12.14	2003.1.6~2.28	(교재포함)

- 여름 집중 한국어 및 문화체험 과정(4주)**
- 월~금 오전 9:00~오후 12:00(주당 15시간)
- 15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교포 자녀, 일본 방학에 맞춘 특강, 정부기관 및 사업체 외국인 위탁교육.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여름	2002.6.21	2002.7.8~8.2	₩600,000 (교재, 특별활동, 여행 포함)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과 실용성을 갖추고자 정성스럽게 만들어 졌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하고 실용적인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향상을 도와드립니다.
- 사용법과 시험 순서 등과 같은 동국대학교 한국어과정만의 특별한 활동과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상 회화 실습 및 복습과 한국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Conversation Partner Program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매일 오래된 불교계 학교의 학술적 문화적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비 영어권 학생들은 영어인 강사의 수업료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언어 능력 평가와 수요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Tel: +82-2-2260-3471~1 Fax: +82-2-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URL: http://today.dongguk.ac.kr

메아리

아! 옛날이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어... 그 응얼거림에 이제는 동의할 수 없게 된 ‘나’였습니다”
지난 9일 동아일보사를 퇴사한 ‘동아희평’의 손문상 화백이 다음날 사내게 시판에 올린 글 중 한 구절이다. 손 화백은 퇴사의 심정을 알리는 이 글에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충언은

비단 동아일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노무현-연론’ 전쟁에서 ‘조중동’ 등 거대언론사들은 노골적인 태도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이은 비방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는 지난 5~7일,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슈퍼 3연전’에서 대구, 인천, 경북지역 등 세 곳의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 국민의 지지가 노

후보를 향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언론이 노 후보를 비판하며 사용하는 주된 도구는 음모론·색깔론에 이어 노 후보의 언론관이다. 노 후보가 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요언론국유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후보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대선주자로서의 자질을 재고해야겠지만,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부재로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부언론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노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과거, 언론이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일깨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 개인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대언론사들의 모습은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데 급급해 언론의 소명인 진실·객관·

공정 보도는 까탈게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옛날, 초철살인의 필자로 진실을 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화답 ‘했다던’ 언론의 모습이 그리다. 그러나 그리워할 할 것인가.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불온한 정치권 개입을 그만두고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문화부장
papaya@dongguk.edu



다함께 만드는 ‘책 권하는 사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부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책 속에 길이 있다’ 까지 책을 주제로 한 격언이나 명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독서의 중요성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 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까 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월 평균 독서량은 1.6권이며, 도서구입량은 0.9 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출판연구소는 우리나라 성인이 1년간 읽는 평균 독서량은 채 10 권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읽히는’ 책들마저도 대부분 실용서나 베스트셀러로 국한되어 있으며, 본고는 물론 서울대, 연·고대 등과 같은 대학 도서관의 도서대출 현황이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깝고 말초적인 독서문화만을 좇는지를 보여주며 올바른 독서를 위한 환경이나 교육이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불어라, 독서열풍

때문에 최근 MBC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자’ 코너를 시작으로 문화일보의 연중캠페인 ‘나시 책이다’, 대한문화신문의 독서캠페인 ‘대하소설을 열자’ 등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독서열풍’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의 독서관 캠페인들이 주로 추상적인 구호 외치기에만 연연했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책책! 책을 읽자’만 보더라도 친숙한 코미디언을 기용해 책의 필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독서문화화 여러 형식으로 소개하는 문화일보나 매주 추천 대하소

설을 제시하는 대한문화신문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www.bookreader.or.kr)’은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포스터에 영화배우 안성기를 모델로 등장시켜 독서의 생활화를 편한 분위기로 풀어낸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 김병훈 과장은 “TV, 신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독서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유형을 따르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 좋은 책을 선별해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가 함께한다

오는 23일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책의 날’이다. 세계 30여개 국이 이를 기념해 국가별로 책 관련 행사를 준비중이다. 특히 영국은 각 학교와 양육시설에 ‘북토른’을 보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

다. 그리고 잡자기 직전 20분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정해 ‘잡자리 독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들은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군대에 있는 친구나 연인에게 책을 보내는 ‘사랑의 책 보내기’나 스페인의 책의 날 행사를 본떠 23일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책과 장미 축제’ 등이 전국 대형 서점에서 펼쳐진다.
“한 달에 30여권의 책을 읽는다는 아이가 어찌나 조리 있게 알맹이 있는 말만하던지 기가 죽어 혼났습니다.”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개그맨 유재석이 한 말이다. 그 어떤 격언이나 명언처럼 그럴듯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책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책은 지식정보와 상상력의 원천이다.

또한 인생의 철학과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창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독서열풍이 한순간 뜰어치는 회오리바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독서문화는 모두가 함께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에서 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했던 ‘세인트 조지’의 날과 1616년 세계적인 작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에서 유래했다.

독서분과원 유정원(문창3) 양을 만나

알고보면 유쾌상쾌한 독서여행!

고전·교양서 등 다양한 책읽기로 작품 분석능력 키울 계획



특별한 매력에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책에 무조건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고 독서를 학습 개념이 아닌 즐길 수 있는 매개로 활용해보고 싶었다.

- 활동방식은 어떠한지.
= 우선 고전을 중심으로 교양서, 인문과 학서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계획이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신화’ ‘시학’ 등 1학기 동안 읽을 책은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이종대(문예창작학) 교수님께 질문을 구해 대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들로 선별한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과 문학은 학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주 책 한 권을 읽은 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표를 하고 그것 위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작품을 분석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 독자가 단순히 ‘읽는 작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당분간은 정식 분과로 인정받기 위해 꾸준한 독서활동과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자리가 잡히면 책의 뒷이야기 쓰기, 저자와의 만남, 소설의 배경장소 방문하기 등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 중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칙칙폭폭에서 ‘책책폭폭’으로

지난 4일부터 책열차 운행...독서 생활화에 이바지할 것

많은 사람들이 갑갑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기차역을 찾는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기 위해 그 먼길을 서슴없이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굳이 그렇게 먼 곳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4호선 ‘독서열차(부제=메트로 북 메세)’를 타고 신비한 책의 세계로 빠져들면 말이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의책나눔기운등분부가 공동주관 하는 이 행사는 범국민적 독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하루 12회씩 사당~당고개 구간을 운행하는 독서열차는 모두 10량이다.
먼저 전동차 외부는 훈민정음, 추사체 등 전통적인 서체와 더불어 최근 개발된 다양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장식해 책의 부활을 상징화했다. 그리고 전동차 내부는 ‘문자와 책의 역사’를 비롯해 ‘문학의 숲을 거닐며’ ‘내 인생을 가꾼 한 권의 책’ ‘책나라 만화나라’ 등 책자별로 주제를 달리해 승객들이 흥미롭고 폭넓게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특히 ‘책으로 가는 평양’이라는 주제의 객차는 북한에서 발간된 서적은 물론 금강산의 모습이나 북한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총 1만 여권의 도서를 싣고 도심 속을 달리는 이 책열차는 승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선반 밑에 간이서가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하철 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은 흔들림이 적고 운행시간이 길어 책 읽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전시 책을 수시로 보충·교환해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지하철과 책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바래다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지하철이 승객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면, 책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앞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본 도쿄 열차 안은 독서를 하는 사람들로 언제나 만원사레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도쿄 지하철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풍경이자 자랑거리로 세계에 알려졌다. 반면 우리의 지하철 풍경은 어떠한가. 하지만 지금 지하철 4호선에 가면 책 향기로 가득한 미래의 우리 독서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매체비평

광고 편

원저12

“살짝 엿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나 남는 건 없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저12.

‘결론부터 말하면 이 광고는 관촬은(?) 광고다. 남자의 본능을 자극해 시선을 끈다는 이유만 본다면 말이다. 술 한잔 취흥에 여인과 함께 함은 보통 남성네들의 바람이다. 고매한 목향의 경지로 우리를 받는 완당 감정회도 한 시절 세상 살아가는 맛을 일독(一讀) 이호색(二好色) 삼음주(三飲酒)라 했다니 나 같은 범부야 웅커니 하고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채 맞장구 칠 뿐이다.

일단 섹스어플의 이미지로 시선을 끈 술 광고는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자를 내세운 술 광고는 흔하다. 이 상투적인 패턴 속에서 어찌든 새로운 자극을 표현할 것인가가 과제였을지 모르다. 여타 다른 상품의 광고에서도 잘못 쓰면 촌스럽다

소리를 듣는데 여성의 은밀한 성 감각을 내세우는 고급 술 광고는 더욱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광고를 만든 이들이 부딪친 첫 장벽은 모델이었을 것이다. 광고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필자에게도 어쩔 수 없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으니 일반 패션이나 언더웨어 같은 광고에서는 ‘국산’보다 ‘제’ 모델을 써야 한다는 건전치 못한 생각이 그것이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문화 채널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의 허상을 좇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챙기려다 생긴 병이니 그 원죄는 광고 소비자에 있음을 강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면 3차 시리즈까지 이어진 이 광고는 모델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않

고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관심을 증폭시킨다. 모델의 정체가 열아홉 우크라이나 처녀라는 사실을 알게되니 또 한번 ‘제’의 위력(?)을 실감하며 한국병을 추슬러 볼 수밖에.
이 광고의 핵심인 비주얼 처리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되었다. 결국 비주얼 포인트는 여자의 가슴, 허리, 다리 등 부위의 가족의상을 원저12의 병 모양대로 도려내어 색시킨 터치로 부각시키기다.

고백하건대 필자가 이 광고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신문을 뒤적이다 우측 아래쪽 9단2센티 사이즈에서 순간적으로 받은 느낌은 가슴이 깊이 패인 가죽재킷을 입은 섹시한 여인, 그리고 ‘원저 위스키’ 광고 새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 정도였으니 아마 심

드럽하게 무심코 광고를 소비하는 타겟의 리스판스, 즉 일반 남성네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그것이 이 광고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따져보면 재킷의 목 라인과 병목 부분이 겹치고 요즘 남자들에게 가슴 패인 의상이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를 눈여겨보았거나 거듭 본 사람에겐 문제가 안 되었을 터이고 열 허리 아래 부분을 노출시킨 3차 광고는 표현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커피의 역할을 축소시킨 이 광고 시리즈는 남자들의 엿보기 심리를 교묘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하는 너무나 속보이는 전략으로 말이다.

오정우
애드씨씨 본부장



동대신문 창간 52주년을 맞아 본교 재학생들의 일간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본교 통계조사연구회에 의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신문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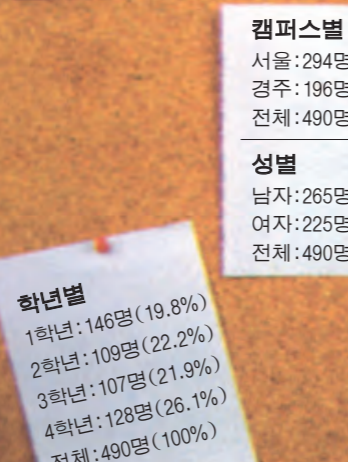
의견수렴 · 홈페이지 운영 부족 ... 다양한 구성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2002년 3월 30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전체 재학생 21,614명(서울 12,891명, 경주 8,723명)을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5% 허용오차 내에서 구성했다. 표본은 캠퍼스, 단과대, 학년, 성을 기준으로 층화 표본 추출법과 할당법을 병행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해 서울 캠퍼스는 조사가 직접 응답자를 찾아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자가 기입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경주 캠퍼스는 경주 신문사 기자들이 직접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분포도



구독신문 선호도

조선일보 구독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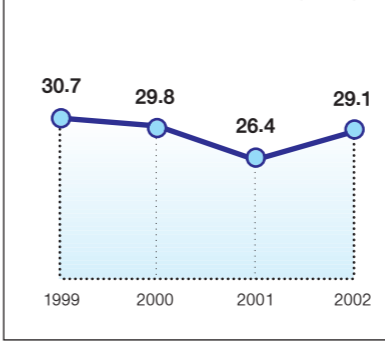
본교 학생들의 주 구독신문은 조선일보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선일보 다음으로 학생들이 즐겨보는 신문으로는 중앙일보(26%), 동아일보(17.8%), 한겨레신문(13.9%), 한국일보(6.3%)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안티조선 운동으로 감소했던 본교 학생들의 조선일보 선호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사가 1999년 이래 실시해온 구독신문 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를 주로 읽는다는 학생이 1999년에는 30.7%, 2000년에는 29.8%, 2001년에는 26.4%로 안티조선 운동이 활발했던 지난해에 조선일보 구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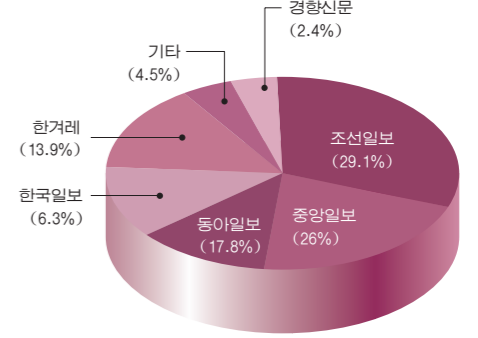
이처럼 지난해 줄어들었던 조선일보 구독률이 다시 증가한 것은 정부의 신문고시 도입 등으로 확산되었던 언론개혁 운동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간지의 주 구독이유는 '집에서 구독하기 때문' (56.8%)이었으며, 이용할 정보가 많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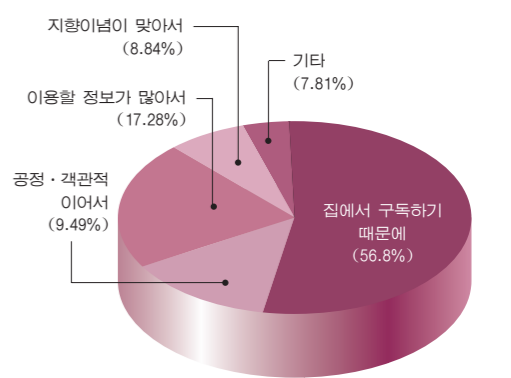
조선일보 선호도 변화 추이 (단위: %)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은?



이 신문을 가장 많이 읽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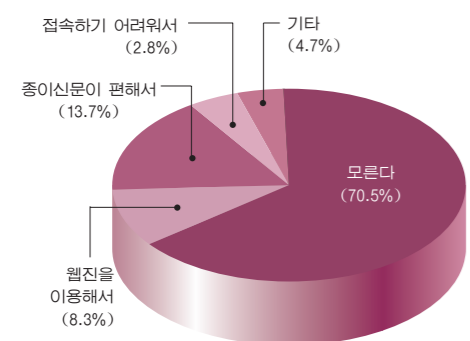
(17.28%), 공정·객관적이어서(9.49%)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구독신문 중 주로 읽는 지면은 스포츠면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면(24%), 문화면(17.6%), 정치면(10.1%) 등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정치보다는 문화·스포츠 등 흥미위주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대신문 홈페이지

신속한 정보 제공 요구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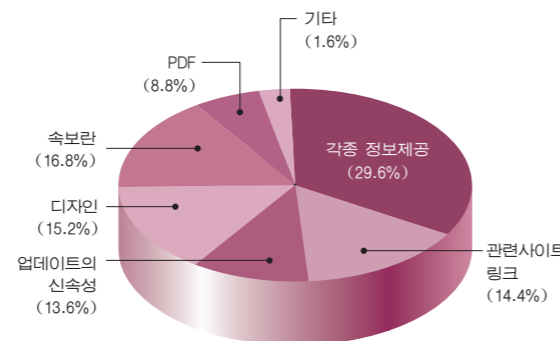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동대신문 홈페이지 접속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전혀없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으며, 방문하지 않는 이유 중 '모른다'는 답변이 70.5%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대신문 홈페이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접속한 적이 있는 학생들도 비정기적(19.8%)인 접속이 대부분을 차지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와 접속한 학생들의 정기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대신문 홈페이지 접속 경로는 본교 홈페이지(75%)를 통한 방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유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홈페이지에 새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한편, 학생들이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각종 정보 제공이 2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업데이트의 신속성(13.6%), 속보란(16.8%)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인터넷의 특성을 살린 신속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동대신문 홈페이지는 신문제작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기사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의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종이신문보다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즉각적인 기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참여

'투고해본 적 있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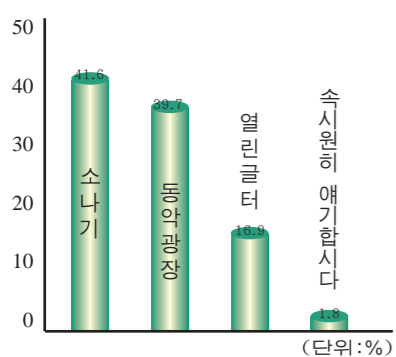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대신문 독자 참여 칼럼인 소나기, 동아광장, 열린글터 등에 글을 써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9.95%로 낮은 수치를 보여 독자참여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독자칼럼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90.05%)고 답변한 학생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어서(53.2%) 투고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25.8%의 학생들은 독자투고 방법을 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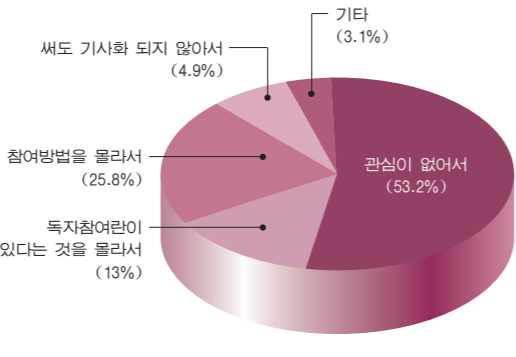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신문 지면 하나나 투고요령에 대한 원 인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동대신문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해 읽히는 지면을 만들고 독자들이 동대신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해본 칼럼의 이름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인지도·만족도

공정성·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 높아

동대신문에 대한 인지도는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했으며, 만족도는 전체구성, 기사내용 두 부문으로 분할을 구성했다.

우선 인지도 문항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사 내용이 정확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79.35%였으며, '아니다'라는 답변이 20.65%였다.

그러나 인지도 문항 중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종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가라는 질문에 절반을 차지하는 47.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 '기사내용이 편파적이다'고 답한 학생도 38.4%를 차지했다.

만족도 부문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은 수치를 차지했으나, 내용의 다양성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3.9%를 차지해 다양한 내

용에 대한 지면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학생들이 주로 읽는 기사는 학내보도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학사 정보를 얻기 위해 동대신문을 읽는다(41.4%)는 이유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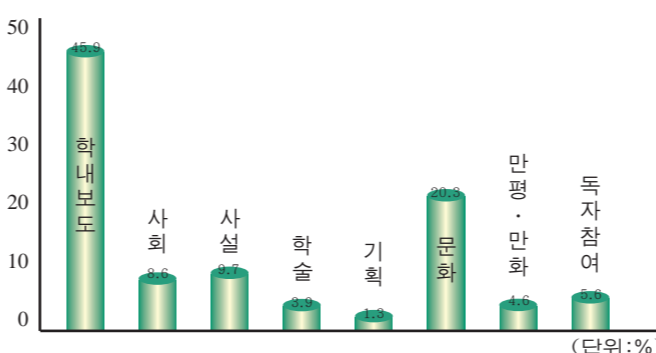
학내보도 다음으로는 문화(20.4%), 사설(9.7%)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 또한 주로 읽는 기사와 같은 순으로 학내보도(29.7%), 문화(23.7%)로 나타났다.

신속성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학내보도의 신속성	51.5	41.7	6.8					
정확성	학외보도의 시의적절성	27.9	58.2	13.9					
정확성·타당성	기사내용이 정확하다	79.35	20.65						
	기사종류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47.7	52.3						
	기사내용이 편파적이다	38.4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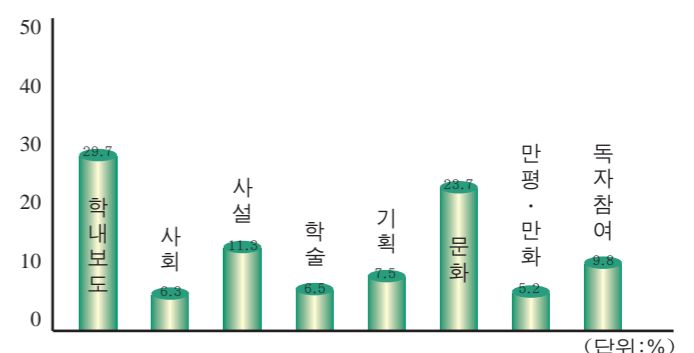
동대신문 만족도

	만족도 (단위: %)	
	만족	불만
전체분량	77.6	22.4
편집디자인	61.7	38.3
기사의 유용성	61.7	38.3
내용의 다양성	46.1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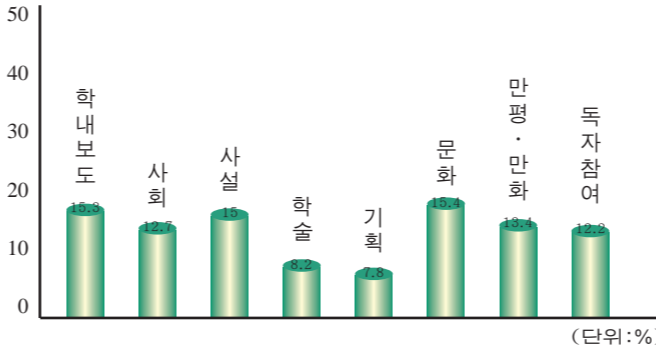
주로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개선되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강화·추가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